

Q 저는 시골에서 건축일을 하며 3년전에 어미돼지 5마리를 사서 새끼를 내서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비육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부터 몇마리가 구토를 하더니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색 정도의 설사를 죽죽하더군요. 처음에는 사료통에 입을 대지도 않더니 지금은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TGE라고 하며 특효약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돼지가 갑자기 밥을 잘 안먹을 때는 급체인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약이 좋은지요. 또 약품 첨가제 사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약품 처치된 사료를 먹이면 다른 예방약을 안섞어 먹여도 되는지요. 임신 모돈에게는 약을 섞어 먹이지 못하는지요. 주사는 마음대로 놓아도 괜찮은지요. 겨울에 자주 물청소를 해주는 것은 나쁜지요. 겨울에 자주 짚을 넣어주는것은 어떤지요. 그리고 그동안 내부 소독약으로 단졸 100대 1로 혼합하여 분무소독해 왔는데 연막 소독기를 구입하여 연막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소독약이 좋으며 어떤 비율로 혼합하고 효과는 어느정도 인지 또한 얼마간격으로 소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외부 소독약은 같은걸로 써도 괜찮은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266-3 김병철>

A 귀하의 질문으로 보아 구토와 설사를 한 돼지는 돼지의 전염성 위장염(TGE)으로 추정됩니다. 요즈음 각 지역에 TGE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가축위생연구소)은 앞으로 더욱 번질것을 우려하여 1986년 2월14일 TGE의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양돈농가의 이 병에 대한 예방및 방역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TGE의 주요증상및 예방관리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중에서

-돼지가 갑자기 밥을 잘 안먹을 때는 급체 같다고 했는데 돼지는 음식에 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단 어떤 질병을 의심하고 관찰을 잘 하여야 합니다.

-사료 첨가제는 영양제, 성장 촉진제 및 항균제 등의 많은 종류가 있으며 각 첨가제중에서도 그 종류가 많습니다.

-또 더러는 이들이 복합적으로 첨가된 사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첨가된 사료에는 반드시

첨가물의 표시가 되어 있으니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어떤 특정한 병의 예방 치료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첨가제는 주로 항균제인데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는 없지요. 경우에 따라 다른 약제를 섞어서 먹여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인 약이나 주사는 임신된 돼지에 주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돼지콜레라 생독 예방약이나 기타 특별히 주사를 피하도록 지시된 것은 가능한 한 주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철에도 돈사내가 얼지만 않으면 자주 물청소를 해서 청결하게 하는 것이 질병예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돈사내가 너무 습하지 않도록 하고 환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돈방 안에 깔짚을 넣어 주는것은 보온과 바닥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방하지요. 그러나 자주 갈아 주어 과다 습기와 발효를 방지하여야 됩니다.

-연막 소독을 위한 소독약제는 "올비벨(Or-

bivet)과 팜플루이드"등이 있는데 각각 동물약품 대리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올비벨'의 소독방법 및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소독(축사가 비어 있을 때)은 50배 희석액(2%용액=올비벨 200ml:물10ℓ 즉, 올비벨 박카스병으로 두병반에 물 한바겟스)으로 1주 1회 소독하고, 정기 소독(동물이 들어 있는 축사소독)은 100배 희석(1%=올비벨 100ml에 물10ℓ)으로 1주에 3회 소독합니다. 그리고 희석액 10ℓ(한바겟스)면 약 30평은 소독할 수 있으며 약효는 독일 농업협회(DLG)에서 공인 되었으므로 매우 양호하고 축사 내외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돼지전염성위장염(TGE)의 주요증상 및 예방 대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요증상

TGE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설사를 할 때까지의 잠복기는 18-48시간이나 잠복기가 지나면 식욕이 없어지고 구토와 심한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토는 젖을 먹은 직후에 심하며, 설사를 하는 동안에 지속되는데 설사가 2-3일 지속되면 체중의 급속한 감소와 심한 탈수상태로 폐사하게 됩니다. 설사는 빨래줄 모양으로 줄 설사이며 바닥은 물론 벽에 까지도 배설물이 오염됩니다.

폐사율은 생후 5일 이내의 포유자돈은 1백%폐사하며 일령이 증가할수록 발병증상이 가볍고 폐사율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한번 발병하면 회복이 되더라도 그후 발육이 불량하여 위축돈이 되기 쉽습니다. 비육돈의 경우 2-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를 하기 시작하며 3-4일간 지속되다가 2차적인 세균감염이 없는 한 거의 회복되나 한 돈사내의 돼지무리는 1-2주간 지속되는데 설사를 하는동안 탈수증 및 체중감소가 뚜렷해집니다. 임신 모돈이 분

만 직전에 감염되면 물론 설사를 심하게 하고 식욕감퇴로 분만후 젖이 적게 나오거나 또는 아예 전혀 나오지않고 자돈은 모돈의 체내에서 이미 감염되어 분만후 2-3일 이내에 죽게됩니다.

나. 관리 및 예방

1) 외인 및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하여야하며 새로 돼지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격리시켜 검역을 철저히 하고 보균돈이나 잠복기에 있는 돼지의 입식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번식돈은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격리시켜 신생자돈의 감염을 피해야 하며 분만 계획을 중지시켜 감염주기를 차단시키고 발병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2) 모돈을 감염된 돼지와 접촉시켜 모돈을 감염시킴으로써 모돈이 면역을 얻으면 그 돼지가 낳은 새끼는 젖을 통하여 모체의 항체를 받게 되므로 감염을 방어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른 돈군에 TGE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할 해야합니다.

3) 예방접종 : 돼지 전염성위장염의 예방접종은 주로 임신모돈을 면역시켜 젖을 통하여 어미의 항체를 새끼돼지에게 주어 젖을 먹고 있는 동안의 새끼돼지의 발병을 막아 보자는 목적이고 임신돈 자체나 육성돈에서의 감염방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신 후반기의 모돈에 접종되어야 합니다. 임신돈에 대한 예방접종은 TGE백신 2ml를 근육 또는 피하에 분만 5주전에 1차 접종하고 다시 분만 2주전에 2차 접종하되 반드시 2회 접종을 하여야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만일에 안이한 생각으로 1회만 접종을 하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건강한 임신돈에만 접종을 하고 체온이 높거나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기타 질병이 있을 때에는 백신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응답자 : 김용희 박사(가축위생연구소))